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과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이 다그쳐 지는데 맞게 지피식물과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구획도로와 걸음길조성을 계획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장마철전으로 주변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호동과 9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내부구조가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 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펄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곳곳에 세워진 호소성이 높은 직관물들, 힘있는 방충선전으로 들쭉이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별공사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기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개건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자들이 맡은 대상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하자면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개건에서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면서 특히 관람석, 경기장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야 5월1일경기장을 주체적인 건축술이 집대성된 체육시설로 전변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에서 설계뿐아니라 시공도 주체가 명백히 살아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

자와 관람홀, 계단부분의 색깔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채로워질것이라고 하시였다.

5월1일경기장을 웅장화하려고 산뜻하면서도 깨끗하게 개건하자면 건설자들이 모든 요소소소에 자기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1일경기장개건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훈 7련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시고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적들의 변화되는 침략전쟁기도와 전투행동방법, 무장장비의 특성에 맞게 주체적해상전법을 더욱 완성하고 능란하게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아군 동서함대의

해상공격작전능력을 비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을 다병종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후방사업실태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료해하시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를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중훈 7련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내훈련을 보신 다음 잠수함 748호의 내부격실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잠수함 748호의 해병들이 훈련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작전능력을 비상을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식당,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장병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잠수함 730호와 748호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중앙보고대회 개최를 최대복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선언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의 전설적위인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모신 대행운의 날을 맞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일 요 일 의 대 동 강 반



평양의 젓줄이며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비껴담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 경치 하도 뛰어나 옛날 외국인의 한 사신이 《천하제일강산》이라는 북극까지 남긴 일화를 전하는 대동강반이 오늘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흘러넘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평양시민들의 여름철생활은 뽕뽕이 뽕뽕이 이어져있다. 일요일의 대동강반은 나름대로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남녀로소들로 흥성인다. 즐겁고 유쾌하게 휴식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일요일의 대동강반은 해저두는 줄 모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범식



속담의 호상관계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레절있게 대하고 좋게 말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 이편에서 방망이로 치면 저편에서는 그보다 몇배나 큰 흥두께로 때린다는 뜻으로 남을 해치면 그보다 몇배 더 한 보복이 돌아온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힘함하다면 좋아한다.》 고슴도치새끼는 털가시가 세게 돌아나서 곱다고 할것이 못되나 그래도 곱다고 칭찬하면 어미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자그마한것이라도 칭찬해주면 다 좋아한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곱게 살면 갇음밤을 날이 있다.》 바른 랑심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

◆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한다.》 공정하고 도리에 맞게 선의를 표시하는 사람은 선의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본사기자

조선민요는 선율이 유순하고 리고있다. 또한 굴림에서 다양한 가창기교로 민족적인것을 더욱 돋구어준다. 조선민요는 선율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리듬이 다양하고 흥취를 기묘하게 돋구어 민족적인 맛을 더욱 잘 살려낸다. 조선말의 특성에 맞게 곡조의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가창도 잘 살려낸다. 오늘 공화국에서 조선민요는 민족음악 발전의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감동을 자아내는 조선민요

극과 광의 차이점

◆ 많은 경우 극은 한두가지 단순한 음식감을 쓰나 광은 여러가지 음식감을 쓴다. ◆ 가공방법에서도 서로 다르다. 극은 극거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잘게 썰지만 광은 음식감들을 극거리보

사화 탕평체의 유래 (1)

이 나라 유구한 역사에 국토통합에 대한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고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초기에 있는 일이다. 마천령기슭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 정씨성을 가진 로인네 일가가 살고있었다. 어느해 봄이었다. 정로인은 겨우내 외양간에 드러누워있던 누렁황소를 끌어내어 정성껏 빗질도 해주고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여름도 들켜보던 손자녀석이 호기심어와삭와삭 먹어대는 소여물속에 이 폭삭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콩알들이 다문다문 섞여있다. 결에서 손가락을 입에 빼물고 감장눈을 깜빡이며 지켜보던 손자녀석이 호기심어린 목소리로 불쑥 물었다. 《할아버지, 이런 미련한 짐승에게도 콩을 먹이나요?》 감장눈알을 굴리는 손자의 물음에 정로인은 대뜸 성난 어조로 《예, 조상어른을 보고 무슨 말버릇이야?》 하며 달사달 발걸음을 쩧었다. 《해해해, 소가 뭐 우리 조상이나요?》 《예, 며느야, 오늘 점심은 좀 푸짐히 준비해야겠다. 달꿀 다락밭을 다 가느



끔직한 메돼지 한마리를 어깨에 둘러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이튿날이 음력 2월 초하루 일군날인지라 정로인은 온 동네 늙은이, 젊은이들을 모두 청해다가 큰 잔치를 차렸다. 하고 정로인이 만이의 의향을 물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차라리 옥두목을 하는게 어떻겠어요? 옥두가 원래 옥 풀이에 특효가 있는 난알이어서 약재로도 쓰이지 않아요?》

꼬니는 우리 겨레가 옛날부터 즐겨늘던 오락이다. 꼬니판이나 그냥 맨땅우에 말을 그려놓고 서로 벌려놓은 말을 많이 따먹거나 가두는것으로 승부를 가르는것이 기본경기방법이다. 꼬니는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하였는데 그것은 평안도에서 《꼬니》,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고누》,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꾼》이라고 부르는 등 여러가지 방언으로 불리우는데서 잘 알수있다. 꼬니에는 우물꼬니, 썸꼬니, 강꼬니, 밭꼬니, 네줄꼬니, 여섯줄꼬니, 포위꼬니, 장수꼬니, 패랭이꼬니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도 많다. 우물꼬니에서 첫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데로부

다 굵고 큰 토막형, 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썰어 쓰거나 다져서 덩어리모양으로 만들어 쓴다. 경우에 따라서 음식감을 통것으로 쓰기도 한다. ◆ 극은 국물이 많고 주로 밥과 같이 내지만 광은 국물이 적고 요리로 많이 쓰인다. 본사기자

또 옥두목이야말로 어느때나 잘 어울리는 식찬이거든요. 《이말에 둘째가 두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형님두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우? 돼지고기를 그만두다니요? 난 오히려 옥두목 좋은줄은 모르겠던데요. 목침만치나 큼직큼직하게 똑각똑각 썰어서 간장이나 특저서 먹는게 뭐가 맛있다 그리시우.》 둘째가 어찌나 승이 나서 반대하는지 정로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발갈이든 김배기든 농사일에 들어서면 저마다 힘든 일은 제가 하겠노라고 서로서로 위해주는 이월형제이건만 어쩔지 식성에선 영 편편이어서 종종 보게 되는 생경이질이다. 《글세 둘째말두 옳긴 하다마는 그렇다구 매 사람의 구미에 맞게 따로따로 음식을 만들어 내을수야 없지 않느냐? 더구나 너희들 어미도 외가에 가고 없는 때에 며느리에 혼자서야 어떻게...》 정로인이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정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대며 마당가에 나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그건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사오니 마음놓으십시오.》 《오—냐, 어서 그래라.》 정로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삼짱문을 나섰고 며느리는 짐삼치비를 서둘렀다.